

전남도, 친환경 수소차 보급 '외면'

전남지역에서 보급된 수소전기차가 고작 2대에다. 충전소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탄소 녹색 전남 구현'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전남도가 수년간 추진된 친환경 수소전기차 보급에 뒷집을 찼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전남도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세먼지 등이 환경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난 2013년부터 친환경 차량인 수소전기차 보급을 위해 국비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에 대해서는 차량 1대당 국비 2250만원, 지방비 1250만원 등 절반 가량을 지원한다. 7000만원대의 차량을 소비자가 3500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하다.

지난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전남 지역으로 등록된 전기수소차는 고작 2대의 것으로 파악됐다.

'저탄소 녹색 구현' 캐치프레이즈 불구 고작 2대 뿐

광주시 출장용 21대 구입 등 총 200여대 보급과 대조

부생수소 생산하는 여수산단 끼고도 수소충전소 '0'

신안 증도에 1대, 도로공사 소유 1대 등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가 올해 현재 207대를 보급한 것과는 대조를 보였다.

뒤늦게 전남도가 내년 20대 보급을 목표로 세웠지만, 수년간 전국적인 추세를 앞지 못하고 안타깝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현대자동차가 특화된 7000만원대 넥소를 출시해 전국적으로 차량 보급이 늘었지만, 전남도는 전혀 대응을 하지 못했다.

광주시가 지난 2014년 5대, 2015

년 8대, 2016년 11대, 2017년 17대, 2018년 166대 등 총 207대를 보급한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900대를 넘어섰다.

광주시 관계자는 "2014년 수소전기차 1대가 1억5000만원이었는데, 지난해 특화된 넥소가 양산되면서 가격이 7000만원대로 떨어져 보급 대수가 비약적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수소차 대중화를 위해 출장용으로 21대의 수소차를 직접 구입하기도 했다.

광주시와 비교해 전남도가 수소

차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이렇다보니 충전소 역시 전무하다. 광주시는 동곡충전소와 진곡충전소 등 2곳이 있으며 내년까지 총 8기의 수소충전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의 경우 수소충전소의 핵심인 부생수소를 생산하는 여수산단을 보유하고 있지만 충전소가 없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전남도가 뒤늦게 시동을 걸었지만, 후발주자로서 얼마나 성과를 낼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전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수소차 보급을 위해 홍보에 나섰으나 지역민의 관심이 많지 않았다"면서 "내년 20대를 비롯해 2023년까지 500대 목표를 잡았고 여수산단 등에 충전소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동구, 동명동 상생발전 보고회 개최

광주 동구가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 구성을 위한 '동명동 상생발전 주민설명회'를 6일 동명동 '이아플렉스(I-PIEX)광주'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최근 동명동의 급격한 상업화로 인한 갈등, 분쟁, 동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현상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과 주민들의 능동적 참여를 독려하고자 마련됐다.

입법 동구청장을 비롯해 주민, 마을활동가, 상인 등 50여 명이 참여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동명동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사업 경과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 구성과 활동방향 ▲설문조사 결과발표 ▲동명동 인근 추진사업 등을 설명하고 참여자들 간 활발한 토론이 오갔다.

서구, 공공일자리사업 안전교육 실시

광주 서구가 5일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서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124명을 대상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

교육은 광주광역시 서부소방서 정법준 강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심폐소생술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공공일자리 사업 특성상 현장 근무자들이 많은 관계로, 사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및 주의사항 등을 집중 교육했다.

남구, 워라벨 확산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

광주 남구는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워라벨(Work & Life Balance) 문화 확산을 위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8일 남구에 따르면 최근 구청 내에서 육아 휴직 등의 사유로 잠시 직장을 떠났다 복귀한 직원들과 간부 공무원간 릴레이 간담회가 열렸다.

점심 시간을 활용해 도시락 마팅이 3차례 이뤄졌는데, 이 자리에는 육아 휴직 등을 마치고 직장으로 돌아온 복직 직원 42명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복직 직원들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서 상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 휴직이나 육아시간 2시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건넸다.

또 공동 육아가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육아 휴직을 신청한 남성 직원에 대한 편견없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북구, 미세먼지 마스크 무료 지원

광주 북구가 취약계층과 공공부문 근로자 등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무료로 지원한다.

북구는 "최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증가함에 따라 취약계층과 공공부문 근로자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마스크를 무료로 지원한다"라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북구는 8일 사회복지공동기금을 활용해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및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참여자에게 2만 5000매를 우선 배부했다.

또한 예산을 추가 확보해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북구 전체 취약시설 730개소 2만 6500여명에게 확대 배부할 계획이다.

광산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본격화

8일 광주 광산구 어룡동 주민자치회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원 위촉식을 열고 마을과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민선7기 광산구는 주민 권한 강화, 주민이 주인인 주민자치조직 활성화 등을 취지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운남·우산·참단2동에 이어 올해 어룡·수원동으로 확대, 2021년 전체 동으로 확산을 주민자치회 정책의 큰 줄기로 삼은 광산구는 지난해 12월 <광산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위원 선정을 공개 추천방식으로 바꾼 마을과 자치에 관심 있고, 역량을 갖춘 주민이면 누구나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임형택 기자

세계수영대회 개최도시 광주에 FINA기 계양 '대회 카운트다운'

코넬 FINA 사무총장 참석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128일 앞두고 광주시청사에 국제수영연맹(FINA) 기가 계양되며 대회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6일 오전 시청사 앞 광장에서 이용섭 시장, 코넬 마르클레스크 FINA 사무총장, 김동찬 시의회 의장, 정국국 시교육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FINA 기 계양식과 마스코트 조형물 제막식을 가졌다.

대회 조직위원장이 이 시장은 "대회 성공 개최의 관건인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예술단의 대회 참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달 15일 스위스 로잔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 북한 체육부 장관을 만나 공식적으로 대회 참가를 요청했고, 광주시의 초청서한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올해 여름 광주 시민의 자력으로 또 한 번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를 기대한다"며 "대회를 준비하는 광주시와 대회에 참석하는 선수, 관광객들도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FINA 코넬 사무총장은 "FINA가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아주 특별한 경기장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회 준비를 지원해주신 광주시장과 의회, 한국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국제수영연맹(FINA) 기 계양 및 마스코트 조형물 제막식이 6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이용섭 광주시장과 코넬 마르클레스크 FINA 사무총장, 조영택 조직위원장, 정국국 광주시교육감 등이 마스코트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가 6일 광주시청 시민광장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日정부에 위안부 문제 사과·배상 촉구

광주시의회가 6일 광주시청 시민 광장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2일 94세로 별세한 광주·전남지역 유일한 위안부 피해 생존자였던 고(故) 곽에남 할머니를 추모하고 일본이 자행한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법적 배상을 위해 일본 정부가 반인륜적 범죄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과 함께 사죄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행정적, 입법적 배상제도 제정과 더불어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올바른 사실을 토대로 일본 역사교과서에 기록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봉우 기자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양도상속증여
- 기업 진단
- 기장 대리
- 건설면허신청
- 외부 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융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 석면 해체공사
-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 석면조사

측량 >> 토목 설계 >> 도시 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급여체계 정비사
- ▶ 4대보험 무료대행
- ▶ 산재업무대리
- ▶ 징계(해고)자문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세상의 뉴스를 아낌없이...

湖南新聞이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 구독신청 · 광고문의 : 062-224-5800
- 기사제보 ·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